3수 끝에…나주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지정

교육부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 선정
국비 등 6억 투입 17개 사업 시행
100세 시대 대비 인프라 구축 탄력

나주시가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지난해 열린 나주시 평생학습축제. 〈나주시 제공〉

'3수 끝'에 나주시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2차례 고배 끝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나주시는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부문 사업 신청 자격은 물론 100세 시대 각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는 지난 2008년 평생학습 조례 제정 이후 2차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닦아왔다. 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설문, 전담팀 구성, 시의회 결의문 채택 등 평생학습 공감대 형성에도 힘썼다.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와 원도심, 농촌지역까지 소외 없는 촘촘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품 학습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며 도약하는 나주 평생교육'을 비전으로 ▲협치 나주 ▲격차 없는 시민참여 ▲학습공동체 구축 ▲상생하는 평생교육을 평생학습도시 4대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올해 국비 5억600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6억6000만원을 투입해 17개 사업을 시행,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와 연계해 제4회 나주시 평생학습축제를 열고, 나주 안전 아카데미, 수화학교 등을 개최한다. 청년 맞춤 캐쥬얼 강좌인 '퇴근 후 배움 한잔', 외국인노동자·결혼이주여성 등 다양성 존중 프로젝트 '나주! 레인보우 브릿지', 나주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나주배로 파티쉐스쿨' 등도 운영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2만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계기로 100세시대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강진에 대규모 억새 군락지·테마파크 들어선다

대구면 일대 9만㎡에 115억 투입
열기구·조형물 설치 등 볼거리도
연간 관광객 100만명 방문 예상

강진군이 지난 22일 대구면 상저마을에서 '팜파스 그라스 테마파크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강진에 대규모 억새 군락지 등이 조성된다.

강진군은 대구면 상저마을 일대 9만㎡(2만7000평)에 민간자본 115억원을 투입해 팜파스 그라스 군락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팜파스 그라스란 외래종 억새과로 3m 넘게 자라며 활모양으로 늘어진 잎들이 모여서 둥근 형태로 커다한 포기를 이루며 자란다. 키가 크고 꽃이 탐스러운 벼과 식물로 연핑크, 노랑, 연두, 하얀색 등 화려한 꽃 색깔을 감상할 수 있다.

강진군은 군락지와 함께 열기구 설치, 커피전문점 운영, 빛 축제 조형물 설치 등 테마파크를 조성해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로 관광자원화한다.

이 사업은 상저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상저마을 협동조합과 공동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사용 등은 상저마을 협동조합을 통해 먼저 공급받는다.

강진군은 팜파스 그라스 테마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관광객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민선 7기 들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강진군은 이 사업이 가우도 명품 관광단지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진군은 앞서 상저마을회관에서 '강진군 팜파스 그라스 테마파크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 경찰서·소방서 신고 사건 공동 대응 강화 실무 간담회

화순경찰서와 화순소방서는 25일 화순경찰서 2층 만연홀에서 신고 사건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긴급 신고사건을 공동 대응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긴급신고 공동 대응은 112와 119에 각각 접수되는 신고 가운데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이 접수와 동시에 통합시스템으로 상대 기관에 전송되고, 양 기관 출동요원은 초기 단계부터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김진 화순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의 협업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대응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군 ICT 활용한 한우 번식관리 효과

임신 효율 50%→85% 이상 증가

강진군이 한우 수태율 향상을 위한 번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농가 5개소를 선정해 번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평상시 평균 50% 내외였던 발정 진단율이 85% 이상으로 향상됐다.

번식관리시스템은 소의 활동량을 분석해 발정과 분만 등 송아지 생산과 연관되는 정보를 농장주에게 알려주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ICT)이다.

암소가 발정을 시작하면 평소보다 활동량이 증가하는 등의 행위를 포착해 농장주에게 실시간 알려주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농장주가 가임 기간 암소의 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공수정 시기를 놓치면 다음 발정까지 한 달여 사료를 허비해 경영비 손실이 발생한다.

성전면 이문교(62) 축산농업인은 "농번기에 발정을 모르고 넘어가 수정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발정과 분만 정보를 알려줘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사료 값도 아끼고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춘기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우사육은 번식우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번식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투입하면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악취·도로 파손 주범 은행나무 장성군, 황룡강변 옮겨 심는다

장성군이 주민에게 불편을 안기는 은행나무 군락을 가을꽃 축제가 열리는 황룡강변으로 옮겨심기로 했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동화면 중심지 일원에 가로수로 가꾼 은행나무 101주 가운데 이식이 가능한 69주를 황룡강변 연꽃단지 산책로 주변에 옮겨 심는다.

장성군은 병충해에 강하고 가을 정취를 선사하는 은행나무를 동화면 소재지 가로수로 심었다.

열매가 맺히는 10월 무렵 악취가 진동하고, 자라난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내고 주변 가옥과 주택 담벼락을 파손시키면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장성군은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전담반(TF)을 꾸려 시범 굴취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이식 결정을 내렸다. 은행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는 황금편백을 대신 심어 경관을 가꾼다는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은행나무가 황룡강변에 가을 운치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자원은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